



2대리구 영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8주일 2022. 02. 27. (다해) 제2310호

제1독서 집회 27,4-7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2독서** 1코린 15,54-5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39-45 **영성체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위선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휘포크리테스(ὑποκριτής)’. ‘위선자’로 번역된 이 말마디는 ‘해석하는 자’, ‘설명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연기자’를 가리킨 말마디였습니다. 제 본디 모습이 아닌 다른 이의 모습으로 분하여 무대에 올라 청중을 대해서 그럴까요. 복음서들은 ‘휘포크리테스’를 다른 형제들에게 배타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완고한 이들, 특별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휘포크리테스가 등장합니다. 제 눈에 들보가 있어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눈먼 이에 비유되는 휘포크리테스는 제 시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굳이 형제의 눈에 든 티를 꺼내겠다는 오지랖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티’로 번역된 ‘카르포스(κάρφος)’는 지푸라기와 먼지 가루 혹은 작은 점과 같은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말로,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라는 뜻의 ‘도코스(δοκός, 들보)’와 대비되어 나무의 작은 조각 정도로 이해됩니다. 타인의 작은 허물도 이 세상을 허물어뜨릴 만큼의 대단한 위험이나 위기로 해석하고 선동하는 경우가 휘포크리테스에겐 잦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는 데 둔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인간이지요. 제 눈에 들보가 있더라도 다른 이의 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만남과 그 만남의 가치들이 학습되고 규정되고... 그리고 다른 만남의 잣대로 해석되겠지요. 타인의 티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때문 크게 보여 마음에 생채기로 남기도 하고, 타인의 티가 들보처럼 크게 보이더라도 우리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작디작은 티가 크디 큰 사랑의 기회이자 버팀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휘포크리테스는 상대적인 것들 안에서 저 혼자서 절대성을 강변합니다. 제 해석만이, 제 설명만이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한다는 완고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루카 6, 40) ‘배우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카타르티조(καταρτίζω)’는 상호적 교육을 가리키기도 하고(갈라 6, 1)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서로의 친교와 일치를 가리키는 동사이기도 합니다(1코린 1, 10; 1테살 3, 10 참조).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천상의 가치를 상대적인 지상 안에서 이리저리 펼치는 유연성을 제 인식과 사고의 밑바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유로이 설 수 있는 ‘카타르티조’의 삶은 (1베드 5, 10 참조) 결국 용서와 사랑의 삶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못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자 매일 반성하고 참회한다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제대로 보기는커녕 여전히 우리의 들보는 제 눈과 제 마음과 제 머리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들보를 빼내기보다, 우리가 서로의 티를 너그럽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말 한마디는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행여 제 들보에 힘들었던 이들,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께 다시금 겸허히 청합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감히 사랑으로 봐 주십사 라고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

빛이 되는 빛, 불을 끄고 별을 켜라!

교구 문화홍보국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세 1, 3-5)

도심에는 별보다 더 밝은 온갖 인공 빛들이 가득합니다. 맑은 날에도 10개 이상의 별을 보기 어려운 도시의 밤, ‘빛’은 얻었지만 별의 배경이 되는 ‘어둠’을 잃은 것입니다.

지구의 도시들은 온갖 네온사인과 광고 조명, 가로 등 등 여러 가지 빛들로 24시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2년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88올림픽 이후 심야 영업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그야말로 도시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빛 공해가 4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조명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전구나 형광등에서 에너지 소비 전력이 낮은 LED와 같은 조명 기구들의 등장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를 기대했으나 기대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조명 사용이 증가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주로 야간에 이동하는 철새들은 인공 불빛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거나 부딪쳐 죽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부화 직후 바다로 향해야 할 새끼 바다거북은 해안 불빛 탓에 육지로 기어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울지 않는 매미가 밤낮없이 울거나 어두운 밤에 빛을 내 짹짹하는 반딧불이가 번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작물과 가축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성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빛 공해는 생체리듬을 깨트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체리듬으로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빛으로 만족하지 못해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빛의 바벨탑이 바로 ‘빛 공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빛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미래 세대를 위한 ‘빛’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빛의 바벨탑을 허물고 자연의 이치에 겸손하게 순응하는 것만이 하느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빛공해**

빛 공해를 줄이는 생활 속 작은 실천

- ▶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불필요한 조명은 끕니다.
- ▶ 확산형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선택합니다.
- ▶ 잠들기 전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 ▶ 실내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합니다.
- ▶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듭니다.

IN PARADISUM · 천사들이여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선종 1주기 추모 음악회와 추모 미사



대구대교구 8대 교구장이셨던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께서 하느님 품에 안기신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선종 1주기를 지내며 대주교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추모 음악회와 추모 미사를 마련하였습니다.

3월 9일(수) 오후 5시 주교좌 뱀어대성당 대성전에서 열리는 추모 음악회는 이 대주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으셨던 뿌에리 칸토레스의 졸업생들이 김정선 카타리나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의 지휘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뿌에리 칸토레스는 우리도 외국처럼 그레고리안 소년 합창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1994년 9월 대구대교구 산하 단체로 창단되어 세계적인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음악의 밤 행사에서故이문희 대주교와 뿌에리 칸토레스 단원들

그동안 이 대주교님께서 남모르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합창단 아이들을 도우셨으며 은퇴 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떠나있던 졸업생들은 대주교님의 선종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한해 동안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추모 영상 상영과 이 대주교님께서 직접 쓰신 시 낭송에 이어 서행자 임마누엘라 수녀(투스포르코베네티도수녀회)가 작곡한 주교성성 25주년 기념축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시작으로 레퀴엠(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 전곡이 연주됩니다. 추모 음악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3월 14일(월) 오전 11시에는 선종 1주기 추모 미사가 봉헌되는데 가톨릭 군위묘원에서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집전되며 성모당에서는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의 주례로 집전됩니다.

추모 음악회와 추모 미사(가톨릭 군위묘원)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이 대주교님께서 생전에 발표하신 다수의 저서 중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시와 미쳐 발표되지 못한 시, 그리고 일기와 강론, 에세이 등을 묶어 펴낸 유고집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충청도 진천의 발래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에 살던 김원중 스테파노는 본디부터 성품이 순량하고 온후하였으며, 그의 열심과 신덕은 교우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진천 관아에서는 발래기 신자들에게 '다시는 천주교를 봉행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천주교 서적을 관아에 갖다 바치고 직접 관장 앞에서 다짐을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전갈을 받은 발래기 신자들은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대부분 관청으로 서적을 갖다 바치고, 관장 앞에 가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때 김 스테파노만은 “내가 천주교를 신봉하는데 어찌 배교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적도 갖다 바치지 않고, 관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외교인들은 물론, 신자들까지도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 김 스테파노를 원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을 위해 모든 원망을 감수하였다.

1866년 11월 10일(음력 10월 4일), 발래기 사람들은 모두 관아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자 김 스테파노는 교우들에게 “이제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관아로 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달게 받을 정도로 신덕이 깊은 사람만 관아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진천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을 때, 발래기 신자들 중에서 김 스테파노를 비롯하여 10명만이 자진하여 체포되었다. 그들 일행이 관아로 들어가자 관장은 “일전에 갖다 바친 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스테파노는 책을 갖다 바친 적이 없으면서도 “저의 책이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그를 가두었고, 신성순 회장과 2명의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겁에 질려 배교하였다.

12월 6일(음력 10월 30일) 감사가 주재하던 공주로 압송되던 스테파노는 앞서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도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계하여 훗날 천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내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김원중 스테파노
(? - 1866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죽으나 사나 주님의 명에 순종하다가, 죽은 뒤에 천당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나는 공덕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천당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나를 불생각을 하지 마시오.”

김원중 스테파노 일행은 모두가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으며, 12월 16일(음력 11월 10일)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김원중 스테파노의 아우가 공주로 와서 이들 네 명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 주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48. 혼인의 사랑 ⑰

수명의 연장으로 과거 시대와는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친밀하며 배타적인 관계가 40년, 50년 심지어 60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부부는 분명히 함께하는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평생 지속되는 마음의 결단이 따르는 좀 더 심오한 의지입니다. 혼인의 역사에서 육체적 모습은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매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 유대는 새로운 양식을 찾아내고 이 유대를 새롭게 다지려는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는 혼인 유대를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함께 노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청원하지 않으면, 날마다 은총을 탄원하지 않으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힘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기쁨』 163-164항)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2년 1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3.2(수)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장 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만원) | 문 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종교철학 산책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	성경 첫걸음 그리스도인들의 삶
14:00 ~ 16:00	하느님에 대하여 성사론	초대교회 세상살이	예언자들이 전한 하느님의 편지 현대 영성과 토마스머튼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믿음과 사랑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장거리 운송이 아닌 지역 농산물, 친환경 식품(안전성 검증) 이용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대구주보 말씀 맞히기 정답 (연중 제7주일 대구주보 4면 말씀따라잡기)

1. 창세기 3,15 2. 가족옷(창세 3,21 참조) 3. 생명 나무(창세 3,22 참조)

말씀의 해 안내지 59호 정답

1. 여호야킨, 크바르 2. 사람의 아들, 두루마리,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 3. 우상, 송배
4. 맹세, 계약, 나의 사람, 불륜, 계약, 영원한 계약

선입견을 갖지 말고 냉철하게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28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토) 10:00 월성성당

대리구

2022년 제3대리구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
기간: 3.16(수)~(13주간) / 마감: 3.2(수)
대곡성당(수) 19:30 : 서간, 묵시록
월성성당(목) 14:30 : 서간, 묵시록
이곡성당(목) 14:30 : 요한복음서반
수강료: 7만원 / 문의: 641-5678

성소 | 피정

바오로딸 테클라 성소 모임

일시: 3.6(일) 14:00 (매월 1회)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대상: 하느님과 내 삶의 소리를 듣고
싶은 20대 여성
문의: (010)2507-16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3.6(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성가교실): 월,화,목,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금,토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베네심리상담센터(비대면가능)

심리적·영적아픔, 성소갈등, 진로탐색
가족·대인관계 어려움, 신앙상담
개인·그룹·가족상담, 심리검사
문의: 이데레사수녀, (010)7241-2236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의(사전 녹화본)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묵요신학강좌

주제: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등
강사: 송용민 신부, 박동호 신부 외 4명
일시: 3.17~4.28 매주 목 19:30
수강료: 8만원(실시간 zoom), 6강
문의: 한국CLC, (02)333-9898

'밥이 되어 주세요' 밥밴드 멤버 모집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이 되어줄
실력 있는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드럼
문의: (010)3810-5599 / (010)9577-781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과, 250-3048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홈페이지 | 교구장 및 보좌 주교, 교구 사제단, 교구청 부서 안내, 교구 내 본당, 기관, 단체 등 각종 현황,
주요 소식 등 교구의 모든 정보 수록 ⇨ www.daegu-archdiocese.or.kr

교 구 앱 | 교구장, 보좌주교 동정 및 말씀, 교구 사제 및 본당 정보, 각종 기도문, 매일 미사, 대구주보,
교구의 주요 소식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구대교구'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행사 | 모임

임산부 축복 교실

일시: 3.17~31(매주 목, 3주)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임산부 / 선착순 20명
마감: 3.7(월) / 회비: 1만원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3114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188차 워크숍

일자: 3.19(토)~20(일), 3.26(토)~27(일)
장소: 청년청소년국 대안동센터 6층
마감: 3.11(금) / 신청비: 15만원
신청: <http://www.jesusclub.or.kr>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육 | 모집

2022년 황금 성경대학 모집

일시: 3.8~5.31(매주 화)
주간반 10:00 / 야간반 19:30
과목: 예언서
강사: 윤일마 수녀(성바로로팔수도회)
문의: 황금성당, 762-1700

제33기 가톨릭음악원 연구생 모집

개강: 3.5(토) 10:00
문의: 255-4847

직업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리스타, 요리, 목공, 플라워
네일, 베이킹, 반려견교육
대상: 14~24세 청소년 누구나

수강료: 전액무료 상시모집
문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474-4840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3.12(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 수녀, (010)8682-4237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마감: 2월말까지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3.13(일), 3.20(일), 3.27(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3.15~6.21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7만원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7차: 3.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2022년 거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 10:00, (월) 20:00
신약반: (화) 10:00, (화) 20:00
심화반: (수)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 19:30
신약(수) 10:00, 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심화반: 시편(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교구 법원 공시

3월 3일(목)부터 교구 법원 개원합니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안내
기간: 2022년 상반기(임시 영업 중단)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월간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1688-7667

국내 국제 24년 전통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촌 결혼칼럼니스트
안동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산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방법 책 출간
M. 010.6571.3385 (카톡메시지 모집중)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근(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련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